스위스의 아트 그룹이자 예술 기업인 이토이(etoy)의 멤버들. 왼쪽부터 etoy. Silvan, etoy. Tavea, etoy. Pol 그리고 etoy. Monorom

지금 광주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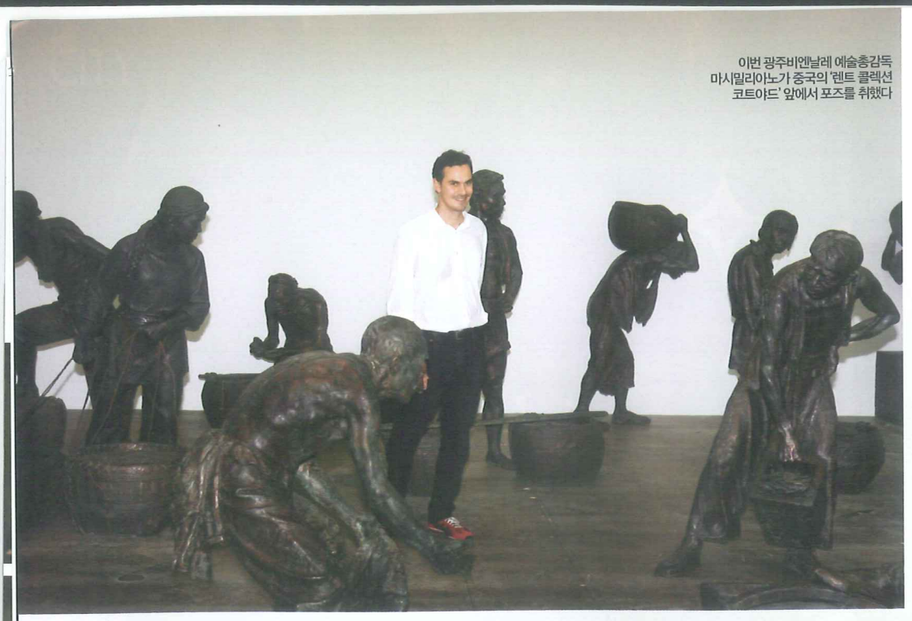
역사적 비극과 질곡을 겪어온 도시 광주가 변화하고 있다. 이 작은 도시의 존재를 해외에 알린 비엔날레와 국내외 미술계의 새로운 명제가 된 아트페어, 실험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쿤스트할레 광주의 등장까지. 이는 광주라는 도시가 스스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자 하는 도전이다. 광주로의 예술, 문화여행 1박 2일. 에디터/ 윤혜정

전일빌딩에서 내려다본 옛 전남도청과 그 앞에 세워진 쿤스트할레 광주

9월이 시작되자마자 빛고을 광주가 분주해졌다. 예술계의 글로벌 스타들이 대거 광주를 찾았다. 광주비엔날레에 신디 셔먼과 장 뤽 고다르가 왔으며, 미국의 유명 컬렉터인 돈 루벨, 멜라 루벨 부부와 중국의 현대미술을 서방에 최초로 소개한 컬렉터 울리 지크, 런던 테이트 모던의 비센테 토돌리 관장 등이 아트페어 현장을 방문했다는 뉴스와 자축의 메시지가 연일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아시아 예술 문화의 허브(Hub)'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쿤스트할레 광주가 성황리에 개관식을 열었고, 내년 봄에 열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총감독으로 건축가 승효상과 중국 디자이너 아이웨이웨이가 선정됐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런 분위기는 전시장 밖으로도 확산됐다. 광주의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예술 놀이터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외의 작가들도 속속 광주의 시장으로 찾아든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벌써 여덟 번째 비엔날레를 개최해오는 동안 곡절 많은 현대사의 사연을 품은 비장한 도시, 광주가 내게는 언제부터인가 그 시간을 저력으로 삼은 역동적인 문화 도시로 느껴졌다. 지금 이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 일행을 가장 먼저 반긴 건 구 시내에 위치한 옛 전남도청이었다. 외국인들조차 광주 여행을 오면 가장 먼저 들른다는 한국 민주화의 성역. 전남도청을 향해 뻗은 금남로에 노란색 '충정축제' 플래카드가 훈장처럼 줄지어 걸려 있었다. 30년 전, 탱크가 질주한 그 길을 신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며 달리던 택시기사가 말한다. "금남로 상가들이 풍암지구나 상무지구 같은 신도시에 상권을 많이 빼앗겼거든요. 축제로 분위기를 살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어딘가에 내려주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10층짜리 전일빌딩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광주의 현대사를 증언하는 광주 1번지, 70년대 금남로에 들어선 최초의 고층 건물이자 전남도청 앞 분수대와 더불어 80년대의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70~80년대에 지하 1층의 전일다방은 지역 문인들과 화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1980년 그날에는 시민군의 몸을 숨겨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사업추진단의 주황색 간판만이 모두가 떠난 신기루 같은 이 빌딩을 지키고 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전일빌딩으로 올라갔다. 불 꺼진 건물을 헤매다 외부로 난 계단으로 나가자 전남도청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역사의 증거로 남은 옛 전남도청의 모습과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본 똑같은 모양의 세트장 이미지가 겹쳐졌고, 시민군 투쟁의 거점이었던 이 공간은 이젠 멈춰버린 분수대만큼이나 고요하고 적막해 보였다. 오히려 검정색과 주황색의 쿤스트할레 광주의 컨테이너 박스가 옛 전남도청의 창백한 흰색 벽을 캔버스로 삼아 더 선명하게 존재한다. 이질적인 존재들이 뒤섞여 있는 이 풍경은 국적불명의 그림처럼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오는 2014년이면 파헤쳐진 이 공사 현장에 국립문화전당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세워질 것이다.

지난 8월 31일 개관한 쿤스트할레 광주는 2014년을 문화수도의 원년으로 삼은 광주가 선택한 도전적인 예술 무대다. 광주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서 가장 실험적인 무대를 여는 건 스위스의 아트 그룹이자 예술적 기업인 이토이(www.etoy.com)의 몫이다. 리더 모노롬이 말했다. "비엔날레 같은 행사로도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위키디피아를 통해 광주의 사연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곳이 광주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알게 됐죠. 이곳의 역사를 우리 작업이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기뻤어요." 이토이는 기술, 사회적인 이슈로 작업하는 예술 집단이자 예술을 생산하고 예술에 투자하는, 그 자체가 예술인 회사다. 현대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컨테이너에 사무실을 담아 세계를 다니고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한다. 다른 직업을 가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 생소한 개념의 회사를 주식회사로 상장했고, 전 세계 2천 명이 넘는 주주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품을 창작하는 데 자본을 투자한다는 건 곧 투자자들에게 금전적인 배당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다는 의미. 대신 이들은 예술과 지식, 재미를 선사한다.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다양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토이의 웹사이트에 들어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토이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하는가, 그 해 어떤 이토이의 전시가 있었는가, 그 전시에 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등을 모두 종합한다. 이들은 '초현실적인 사업가 그룹'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했다.
이번 이토이 개관전은 1994년 이래 선보여온 전시들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그중 〈토이워〉는 약 45억 달러를 들인, 미술사에서 가장 비싼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완구 분야에서 온라인 최대 쇼핑몰이



이번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마시밀리아노가 중국의 '렌트 콜렉션 코트야드'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광주의 명물이 된 쿤스트할레 광주

이토이의 작품 중 어린이들을 위한 브루드(Brood)

비엔날레 출품작인 '붉은 회오리바람', 1985

비엔날레 출품작인 토마스 히르슈호른의 '박힌 페티시', 2006

비엔날레 출품작인 카타리나 브리치의 '성 카타리나와 두 번째 사진(담쟁이 넝굴)', 2006~2007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이한열을 그린 최병수의 작품은 그때처럼 트럭 위에 전시되었다

대인예술시장 내 윤남웅 작가의 작업실 풍경

각국의 작가들이 그린 대인예술시장의 이정표

광주에서 활동 중인 마문호 작가는 대인예술시장에서 레지던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었던 이토이 사(eToys Inc.)를 상대로 벌인 '놀이적인 전쟁'은 며칠 만에 이 거대회사의 주가를 폭락시켰고, 이토이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파워를 증명했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다. 티모시 리어리와 같은 정보학자의 유해와 데이터, 김중만 등의 문화인들의 데이터를 픽셀로 만든 석관을 전시하기도 하고(Mission Eternity), 이토이 주식의 50분의 1 가치를 지닌 구슬로 파친코를 하기도 한다(Etoy Gate). 전통적인 문화 개념의 가치와 싸구려 중독 행위로 여겨지는 도박을 혼합해 예술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이 기계는 백남준의 〈Passage〉에서 영감을 얻었다. 멤버인 폴은 이렇게 말했다. "실존하는 가치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실존하지 않는 가치가 화두입니다."

같은 날에는 광주의 아이들이 브루드(etoy. Brood)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통 안에서 보이는 행동과 반응은 모두 디지털 데이터화된다. 이 데이터는 노트북으로, 휴대폰으로 옮겨다니며 영원히 시공간을 떠돌 것이다. 아이들이 통 안에서 논 것도 예술, 이를 보관하고 전파하는 것도 예술인 셈이다. 아마도 광주의 평범한 아이들은 옛 전남도청 자리를 그 어떤 역사적인 의미보다도 신기한 예술 놀이터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난 아이가 아니다. 흥미롭지만 낯선 개념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모노롬이 기다렸다는 듯 빨간 알약을 건넸다. 이토이 아트 쇼핑센터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알약을 먹자 희한하게도 두통이 씻은 듯 사라졌다. 멤버인 실반이 말했다. "무엇을 느끼는가는 자유이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각을 바이러스처럼 머리에 딱 심어 갔으면 좋겠군요. 세상의 어떤 것도 새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쿤스트할레 광주에서는 그러한 SF 영화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가상세계 같은 쿤스트할레와는 달리,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은 실제 사람과 삶을 기록한 이미지로 넘쳐났다. 예술총감독을 맡은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뉴욕 뉴뮤지엄 특별전 디렉터)는 처음부터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우리에 관한 예술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우연히 고은 시인의 '만인보'를 접한 그는 이를 현대미술을 가장 친근하게 보여주는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로 결정했다. '만인보'는 고은 시인이 전 생애를 통해 만난 인물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인류애의 백과사전' 식으로 만든 연작 서사시. "고은 시인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되었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만인보'가 올해 마무리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놀라운 우연이지 않나요? 게다가 올해는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런 역사를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했어요." 서른일곱 살의 젊은 감독이 이렇게 말한다. "처음 광주에 왔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빌딩들이었어요. 저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존재할지 생각하면서 '만인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죠." 그가 전시장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어떤 작품 앞에서 사진 찍고 싶으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렌트 콜렉션 코트야드'를 꼽았다. "이걸 광주로 가져 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어요. 중국의 국보급 작품이라 허가받는 것도 어려웠고 1백 개가 넘는 작품을 갖고 오는 데도 엄청난 공을 들였지요." 쓰촨성 지방의 대지주에게 착취 당하는 소작농민과 그들의 저항을 실물 크기로 만든 이 작품은 중국문화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기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의 과거와도 맞물린다. 하지만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의 말처럼 "서사가 예술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전시장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테디베어와 함께 한 사람들의 사진 3천 점이 70평이 넘는 방에 2층으로 된 전시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수집의 광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대중에게 소개하는 테마처럼 스스로 이미지를 생산하는 기계가 되려고 시도한다. 프랑코 바카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인 실시간 전시 'n.4(당신의 덧없는 잠깐 동안의 방문을 사진으로 찍어 벽에 남기시오)'를 통해 방문객들이 갤러리의 포토 부스에서 초상화 사진을 찍어 벽에 붙여놓도록 했다. 관람객의 행위가 예술의 일부가 되는 그 지점에서 비엔날레가 더욱 활기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난 15년 전, 첫 번째 광주비엔날레에 와본 이후로 한 번도 광주를 찾지 않았다. 트렌디하면서도 난해한 작품들이 빠짝하게 진열된 모습은 이 도시의 상처를 서둘러 봉합하거나 잊으려는 시도처럼 불편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올해의 비엔날레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박물관처럼 느껴진다. 20세기 초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예술작품과 문화적 유물, 토착적인 이미지와 일상의 오브제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인류와 이미지의 보물창고처럼. 광주비엔날레가 정체성의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첨단 예술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은 듯했다. "고대 신화에 따르면 이미지는 연인의 그림자를 표현하거나 떠나 보낸 이들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비엔날레를 초상화 갤러리, 가족 앨범으로 봐주셔도 좋겠군요. 저기, 이야기하고 사진 찍는 사람들을 보세요. 난 저들 모두의 일상과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올해는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런 역사를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연결 짓고 싶었어요. 처음 광주에 왔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빌딩들이었어요. 저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존재할지 생각하면서 '만인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죠."

광주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장 밖의 전시장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광주가 선택한 공간은 전통재래시장인 양동시장. 광주천을 끼고 갈대밭이 있었던 광주 서구의 양동 지역은 광복 이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질게 살라'는 뜻에서 '양동(良洞)'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 양동시장 옥상에는 시장 1백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양동시장 일일기'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천인보'가 비엔날레의 '만인보'와 맞물려 시장 속 비엔날레를 선보이고 있다.

시장과 예술을 결합하는 시도는 2008년 비엔날레의 전시장으로 사용된 대인시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광주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 교통의 요지에 자리한 덕분에 한때 광주에서 손꼽히는 대형 시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곳. 하지만 터미널이 이전하고 근처 주거 지역이 교외로 빠져나가면서 점차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났다. 하지만 2008년 비엔날레 당시 예술가와 상인,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복덕방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문화예술장터인 '매미(買美) 시장'으로 호응을 얻은 후 이곳은 광주 예술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국내 최초의 재래시장 아트페어인 〈제로-베이스 액션 아트전〉은 시장의 가능성을 또 한 번 증명했고, 지금 빈 점포에는 국내외 작가 25명이 창작 스튜디오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대인시장의 실험은 '2010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인 〈느티나무 숲〉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가 하면 '문 여는 날'에는 대인시장 내 무화과나무 골목 일대에 마련된 예술가와 상인들의 아지트 '상상의 곳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열었다.

광주가 초행인 사람도 대인시장을 둘러보기는 어렵지 않다. 시장 안 점포에 작업실을 꾸리고 있는 신양호 작가가 '상상의 곳간' 현판뿐만 아니라 시장 입구에 정교한 지도를 직접 손으로 그려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 차 있는 잡화상 같은 윤남웅 작가의 작업실은 누구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아예 열려 있고, 고재근 작가의 작업실은 대인예술시장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집 나온 TV, 구두, 이

제는 신지 못하는 인라인 스케이트 등 예술가와 상인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는 리사이클 숍 '장깡'에는 '버리기는 아까웁고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저희 장깡으로 보내주세요'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전라도의 예술, 문화를 다루는 '전라도닷컴'은 대인시장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빌려주고 고쳐주는 만물서비스 쉼터 다다익선'에는 상인들이 언제든 빌려 쓸 수 있는 모든 공구가 예술 작품처럼 걸려 있다.

대인시장은 광주 작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예술가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이기도 하다. 매개공간 미나리가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예술가 등이 이 시장에서 작업한다. 이들은 광주에 머물며 얻은 영감과 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다룬 작품을 제작하여 전작들과 함께 광주 계림동에 있는 매개공간 미나리 전시장에서 곧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만난 재일동포 예술가인 신양자 작가는 시장 근처의 작은 한옥에서 찍은 퍼포먼스 영상을 편집 중이었고, 일본의 반전 전시 그룹 '어깨도모다찌' 회원인 하세가와 다로, 이토 요수케, 히로유키 니시다 등은 시장 상가 2층의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사실 이들을 모두 소개해준 사람은 우연히 만난 마문호 작가였다. 시장통을 기웃거리는 우리 일행에게 먼저 말을 건넨 그는 미나리의 국내 작가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마문호 작가는 비닐을 캔버스 삼아 바느질이라는 행위로 이미지를 새기면서 예술의 육체성을 몸소 증명해왔으며 2008년 '복덕방 프로젝트'에서 최정화 작가와 협업하기도 했다. "광주는 예향의 도시입니다. 1천5백여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지요.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곳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시장 프로젝트는 예술과 대중을 만나게 하는 아방가르드한 실험의 장이 되겠지요."

"옛 전남도청의 모습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광주를 표현하는 일종의 사건이죠. 그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젊은 작가의 말처럼, 지금 광주는 변화의 흔적을 제 몸 곳곳에 새기고 있다. 휴머니티와 상처, 꿈과 현실,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오묘하고도 역동적인 공간, 광주.

광주에서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 중 박태규 작가는 가장 고유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영화 간판그림을 그리는 현역 화가. 이번 비엔날레에서도 그가 한국 영화사를 증언하는 주요 영화를 그린 전작을 직접 선정하여 플래카드 시리즈로 제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우리는 전시장이 아닌 광주극장, 그 안에 마련된 작은 작업실에서 만났다. "원래 이곳이 무대와 연결되는 분장실이었어요. 당시에는 영화관이 아니라 공연도 하는 극장이었으니까. 나훈아랑 남진도 오고.(웃음)" 한쪽 벽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업이라는 〈송환〉을 비롯해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몇 년 전 충무로 영화제 때 관객들 앞에서 직접 시연해 보인 다양한 영화 간판그림들이 세워져 있었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그가 갤러리가 아니라 영화 간판그림을 그리러 가겠다고 했을 때 지인들은 "저러다 말겠지" 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집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이요. 어느 날, 극장 앞을 지나다 색상과 형태가 정확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하지만 크게 그려 표현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가 말하는 '큰 그림'이 단순히 크기가 큰 그림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는 1984년 대학 진학을 위해 광주로 온 이후 민주화 운동 당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는 걸개그림, 벽화, 초상화를 꾸준히 그려왔다. 서민의 모습을 단순하지만 정직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순박한 마음은 서민들을 즐겁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바람으로 변했고, 그를 영화 간판그림 화가의 마지막 세대로 남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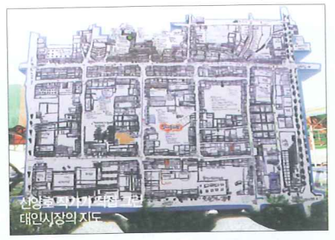
박태규 작가는 일을 시작한 지 10년 후인 지난 2002년에야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애착'과 '추억'을 담아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었고 그해 광주비엔날레에도 초대되었다. 이미 극장은 첨단화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간간이 영화를 그린다. 얼마 전에는 준비 시간이 촉박해 영화 간판그림을 그려달라는 대종상 영화제의 제안을 거절했던 일이 못내 아쉽다고 했다. "이제는 광주에서도 그런 그림을 그릴 곳이 광주극장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일본 자본으로 만들어진 무등극장에 대항하여 지난 1933년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광주극장은 〈기적의 오케스트라 엘시스테마〉 〈땡큐, 마스터 킴〉 〈소라닌〉 〈하얀 리본〉 〈당신은 아름답다〉 〈울지마, 톤즈〉 같은,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영화를 상영하는 예술전용극장으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만난 이날도 광주극장에는 그의 가장 최근작인 〈경계도시 2〉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이제는 서울 청량리나 가리봉동의 영화관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자 상업 공간이 아닌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영화관을 추억하도록 하는 마지막 풍경. 박태규 작가의 영화 간판그림은 광주시의 시각문화에 있어 작지만 의미심장한 역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박태규 작가는 광주의 젊은 작가들에게도 존경받는 존재다. 광주의 젊은 작가 모임인 '잉여그룹'의 멤버들은 그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반색했고, 그의 작업실에 가보고 싶어했다. 전남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네 명의 청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초상화를 그리거나 초상화에 애착이 많다는 것. 이들은 이번 비엔날레 기간 동안 전시장에서 무료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다. 2008년 비엔날레에서도 대인시장에서 초상화를 그렸다. 요즘처럼 멀티미디어가 판치는 시대에 초상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잉여그룹'이라는 모임의 이름으로 대신 설명된다. 김용진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 "예술 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재고하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보통사람들이 말하는 생산성과는 다른 의미잖아요. 요즘엔 종종 사회에서 쓸모없는 잉여 에너지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작업으로 이런 이미지를 전복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부정을 끌어안고 다른 생각을 표현해 보고자 한 거죠."

이미지 과포화 시대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과잉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작업이 문화적인 치유를 선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작업실의 주인인 박성완 작가가 말한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림을 그려 줄 때면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게 초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광주에 터전을 두고 활동하고 있지만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면 거짓말. "서울로 가는 선후배들도 많죠. 하지만 무엇이든 내가 끌어안아야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밖으로 벗어날 필요 없이, 광주에서 호흡하면서 창작 활동을 이끌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오히려 다양한 예술적 이슈로 활기찬 광주에서 활동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아마 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기까지 선배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젊은 작가들은 문짝을 떼어 캔버스로 쓰고, 싱크대에도 작품을 올려놓았다. 젊은 패기가 만들어놓은 나름의 질서가 엿보이는 이 작업실에 초상화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박성완 작가가 그려놓은 옛 전남도청의 작품들. 유화로 그린 다양한 버전의 전남도청의 모습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쪽배 같기도, 대지 위에 오롯이 서 있는 집 같기도 했다. "옛 전남도청의 모습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광주를 표현하는 일종의 사건이죠. 그 사건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젊은 작가의 말처럼, 지금 광주는 이 변화의 흔적을 직접 제 몸 곳곳에 새기고 있다. 휴머니티와 상처, 꿈과 현실, 의식과 무의식,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오묘하고도 역동적인 공간. 지금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B

광주의 유일한 현역 영화 간판그림 작가인 박태규의 작업실


대인시장의 지도

시장 곳곳에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작은 극장이 있다. 주인공들은 당연히 시장상인들

매개공간 미나리의 레지던시에 참여 중인 해외 작가

대인시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

매개공간 미나리의 레지던시에 참여 중인 재일동포 작가 신양자와 고이케 메에코

대인시장 곳곳에서 풍기는 예술적인 분위기

시장 골목을 누비며 볼 수 있는 작가들의 작업실

만물서비스센터 '다다익선'에는 [illegible]이 작품처럼 걸려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 모임 '잉여그룹'의 멤버들. 왼쪽부터 정선호, 김용진, 정다은, 박성완 작가